

사무엘하 1-5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_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강의 내용의 성경범위를 미리 읽어 오신다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의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는 총 8주에 걸쳐 진행되구요. 한 강의당 짧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먼저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시기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와 시글락 성에 이틀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소년 하나가 전쟁터에서 나와 소식을 전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얹드려 죽습니다. 자결한 것이죠. 그런데 소년은 사울왕이 자신을 불러 죽여달라하였기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말렉 소년은 머리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사울에서 다윗에게 옮겨진다는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을 자신이 죽이고 왔으니 자신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년을 처단합니다. 소년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고 처리했습니다. 사울이 자신 중심이었다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원수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이기에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금식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 노래라 함은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줍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활을 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반면, 사울과 요나단은 활 쏘는 자들에 의해 매우 심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즉 활이라는 단어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이나 기억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노래를 만들까요? 사울에게는 나쁜 내용을 요나단에게는 좋은 내용을 넣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와 친구의 죽음 앞에 자신의 마음대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며 똑같이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며 애도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에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으로 쌓여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의 나의 기준과 하나님과의 기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장>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여쭙니다. 이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에 있는 도시로 다른 도시들 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고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요구할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느날 암몬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 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려면 전부 오른쪽 눈을 뽑아 신하가 되라고 하죠. 왜 오른쪽 눈을 뽑으라 했는가? 전쟁을 할 때 보통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방패가 왼쪽 눈을 가려서 오른쪽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것은 전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나서서 암몬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 구해냅니다. 그런데 훗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소식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없다 생각하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신들이 따르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조금도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이에 따라 사울왕조에서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의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군대장관을 맡았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왕이 세워졌는데 이들의 부하들이 기브온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왕의 부하들이 승리하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셨지만 서서히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긴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단 한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웃음을 짓게도 하십니다. 그 여정에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러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시기에 그 길을 신뢰하고 가다보면 왜 이러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두 아내를 데려왔는데도 이 곳에서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군사용 말로서 전쟁의 승패를 말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져오는 우상과 문화로 인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마음들이 여러가지로 나누게 될 것을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은과 금이 인생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 와서 다른 아내들을 더 둡니다. 유다 왕으로 세워지자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국에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이를 배웁니다. 당대 최고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이었지만 많은 이방인 아내를 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사울 쪽에는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사령관 아브넬은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왕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성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울왕과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두려는 정치적인 범죄였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사에서는 적장을 체포했을 때 그와 한 몸인 아내를 겁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였죠.

이를 안 사울왕의 아들이자 왕인 이스보셋은 모욕을 느끼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쓴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브넬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사울왕조가 다윗 왕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에 꿈쩍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대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실 미갈의 남편이자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고, 아직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살아 있으니 다윗에게 후계자의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한 것이죠.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물건처럼 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넬은 미갈을 데려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기쁘게 맞이하며 잔치를 베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을 전해주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가는 동안 다윗의 부하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이전 전투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니 당연히 복수하는게 맞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는데 돌아가는 중에 자신의 부하로 인해 죽임을 당했으니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애도하며 금식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다윗의 무죄함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사울왕조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보셋은 이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습니다. 사울의 왕조를 그마나 유지하게 해준 부하였는데 꼭두각시였던 자신에게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부하기도 했죠.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자 이 두 명은 음모를 꾸밉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다윗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두 명의 군지휘관은 적의 수장인 다윗이 고맙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보복과 죽음 속에서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때 항상 애도 하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칼로 찌르고 이겨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적의 죽음에 환호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울왕조의 사람들이 거의 전멸되다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다섯 살 된 므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다리를 다친 것이죠. 혼자 남겨진 므비보셋을 통하여 사울 집안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므비보셋을 다윗은 품어주고 돌봐줍니다. 요나단과 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멸망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울의 집, 자기의 생명을 왕의 처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므비보셋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므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은혜와 자비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찢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세번째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십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고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기까지 세 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한 순간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목동에서 유다족속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왕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의 왕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셨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 찾아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처음에는 막막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당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해서 살고 있었기에 이를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다윗을 조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저는 사람들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것이라면서 다윗을 알랐던 것이죠. 사실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한 것이 어찌보면 이상한게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렇게 함락하기 어려운 예루살렘 성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어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성 아래에 솟아나는 간헐천을 고지로 끌어올려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를 이용하여 수로를 타고 여부스 족속을 쳐서 성을 함락합니다.

이 때 이스라엘 윗쪽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눈치가 빨랐던 두로왕은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두로 지역은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벌목하여 물에 띄워 보내면 흘러 흘러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두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왕이 백향목과 목공, 석수들을 포함하여 보내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제한합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군대를 정비하여 블레셋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흠으셨다는 뜻의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블레셋을 치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다시 준비를 하고 또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블레셋을 바로 치지 말고 그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기습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간 다윗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 앞에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인도자는 내가 아닌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먼저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2장으로 사무엘하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강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